

뉴스홈 | 최신기사

한라산 백록담 탐방 주 1회로 제한... "정당한 등반객 피해" 항의

송고시간 | 2022-02-22 11:00



고성식 기자
기자 페이지

제주도, 탐방 예약 독점 막으려는 조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앞으로 한라산 백록담은 주 1회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겨울왕국 한라산
[독자 이진심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탐방 예약제를 악용해 다수 인원이 탐방 예약을 독점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4월부터 1인당 탐방 횟수를 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탐방 예약제를 시행하는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 2곳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산을 오를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같은 날 2개 코스의 동시 예약도 금지하고, 1인당 예약 인원도 최대 10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특정인이 10명의 단체 명단을 올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예약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무더기 독점 예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한라산 탐방 예약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확인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한라산 백록담 보호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한라산 탐방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코스별 1일 등산 가능 인원은 성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한국 유튜브,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귀환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 소개팅앱 내부고발...권익...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불소식...오래 기립박수 칠...

반려견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해



판악 코스 1천 명, 관음사 코스 500명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라산국립공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항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최근 밀려오는 관광객 때문에 예약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은 사라오름 가고 내일은 백록담 가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개인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항의했다.

다른 네티즌은 '정당한 방법으로 한라산 등산을 예약하는 등산객들이 피해를 받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ko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22 11:00 송고

#예약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 발 묶인 채 두 눈만 열뚝뚝...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아우 방위 장관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모임·영업·행사 제한 등 거리두기 완전 해제...마스크는 '유자'

검수완박에 청문정국 '한동훈 블랙홀'까
지...여야 끝장대치 예고

1년5개월 만에 전국 평검사회의...'검수완박 대응' 논의

기준금리 1.25→1.50% 또 인상...4%대
인플레 '불 끄기'



법률의 중심 테헤란
TEHERAN

상담이 필요하시면,
다시 한 번 방문해보세요.

법무법인·특허법인·세무회계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찰에 고발

126
-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대병원 자원봉사

59
-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0
-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할
동재개 예열?

40
-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힐 예정"

33

뭐하고 놀까? #홍→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픽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픽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지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계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ws